관음종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환영"

8월 25일 유골 발견에 메시지 발표
새기는회, 잠수안전조치 중 발견
DNA 검사 진행…본격 송환 기대
관음종, 2017년부터 추모 동참해
"양국 미래로 나아갈 발판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사진은 유골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 제공=관음종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로 추청되는 뼈가 발견됐다. 희생자 유골 일부가 수습됨에 따라 조선인 강제 징용 노동자의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8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공동대표 이노우에 료코, 이하 새기는회)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고 우리 종단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는 없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사업을 위해 1991년 일본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새기는회'를 결성했고, 2013년부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잠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5차 잠수조사를 진행했고 갱도 입구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유골 발견도 새기는회가 내년 잠수조사를 위해 진행한 안전조치 작업 중 한국인 잠수사가 발견한 것이다.

새기는회에 따르면 본 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됐고, 잠수사가 이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 공개된 유골 중 가장 큰 것은 42cm로, 새기는회측은 이 유골들을 경찰에 인계해 DNA(유전자) 정밀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유골이 인골(人骨)로 확인될 경우 수몰 사고 발생 80여 년 만에 희생자 유해 수습과 한국 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2017년부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위령재와 잠수조사 후원을 종책 사업으로 채택한 관음종은 총무원장 법명 스님 명의의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에 한일 양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법명 스님은 이노우에 료코 새기는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주일 히로시마 총영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일본인 노동자 47명의 유골이 모두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한 촌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실천이 유골 발견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서로 손을 맞잡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종은 한국불교계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법명 스님은 "부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셨듯,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좇아 바른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희생자 전체의 유골 수습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불자와 시민들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후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조계종 제37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직능·문화체육·사회 분야 등
9월 26일까지 포교부 포교팀에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치하하고자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조계종은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상인 종정상과 총무원장상인 공로상 및 원력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추천 분야는 △계층포교(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직능포교(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문화체육포교(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대중매체 포교(방송,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모바일) △지역포교(신도교육 및 조직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이며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여야 한다.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대상의 경우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공로상, 원력상 포함 포교대상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와 이력서, 종단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기관 재직증명서,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가자의 경우 신도증 사본 및 당해 연도 교무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포교부 포교팀 내원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개최 예정이다. 02-2011-1891

접수=(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포교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나눔의집, 양로시설 휴지 신청…활용 방도 모색

〈休止〉

8월 22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수장고 증설·35년사 발간 의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 시설인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이 양로시설 휴지(休止)를 신청키로 했다. 시설에 거주하던 할머니들의 건강악화와 별세 등으로 공실이 지속되면서 설치 기준 미충족으로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공간의 존치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나눔의집은 8월 22일 광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세영 스님을 비롯해 재적이사 11명 중 6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이사진은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관할청에 휴지를 신청키로 했다.

나눔의집 측에 따르면 양로시설에 거주하던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가 2024년 2~4월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까지 양로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 올해 2월 21일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 미충족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았고, 8월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다.

세영 스님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양로시설 없이 추모시설과 역사관을 운영하고 기념행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휴지



신청을 하고, 그 안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구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운영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사적인 공간을 의도에 맞게 유지해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눔의집은 9월 1일부터 운영재개 또는 폐지 시까지 양로시설 휴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휴지 기간은 1년이다. 휴지가 승인되면 우선 법인 운영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 기념 추모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나눔의집 수장고 증설(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할머니들의 유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를 기숙사동에 100㎡(약 30평)를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나눔의집 35년사 사료집 발간도 논의했다. 나눔의집은 내부 2인, 외부 6인 이상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조직해 2026년 1월부터 1년 8개월 간 35년사를 정리키로 했다. 나눔의집 거주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과 생애 기록 자료를 시기별, 인물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역사관의 활동과 인권평화교육 등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광주=임은호 기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노위, 이주노동자 산재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청년 응오뚜이롱의 49재 및 산재로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추모재를 봉행하고, 모든 영가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길 발원했다.〈사진〉

사노위는 49재와 추모재를 계기로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산업현장 안전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